

POSCO CENTER 개관기념 초대전 출품작 내용

작품명: 가까이...더가까이...(come...come closer...)

작가명:김 용 익(金 容 翼 KIM, YONG-IK)

재료: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acrylic on canvas)

크기: 100호 F

제작년도: 1995년

작품내용

이 작품은 검정 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아니)다.

이 작품은 연필 드로잉 선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아니)다.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작 되었다. 먼저 연필로 드로잉을 한다. 그위에 흰칠(정확히는 수성 핸드코트,내장용 건축 자재이다)을 한다. 한번 더 칠한다. 또 한번 칠한다. 그위에 또 연필 드로잉을 한다. 또 흰칠을 한다. 또 칠한다. 또 드로잉을 한다. 또 칠한다. 또 칠한다.

먼저 드로잉 한 선들은 바닥에 깔려 잘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가까이...다가서서 보아야 가까스로 보인다.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그 위에 연필 드로잉을 한다. 그리고 沙布로 문지른다. 곱게 곱게 문지른다. 캔버스 표면이 몹시 곱고 매끄러워진다. 연필 드로잉 선은 거의 지워져나가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 다가가야 가까스로 보이기도하고 안보이기도한다.

이러한 작업이 끝난 후에 검정 원을 그 위에 그려 넣는다. 검정 원의 명료한 형태와 색깔로 인하여 드로잉 선들은 더욱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멀리서 보면 검정 원만 보인다. 어쨌보면 또렷하고 명쾌한 검정 원만 보인다.

이

이 작품은 검정 원을 보여주고자하는 것 다

이 아니